

5년판 언론중재위원회 NEWS 사립

12

2016 + December
Vol. 198

P R E S S A R B I T R A T I O N C O M M I S S I O N

소복이 눈 쌓인 나무 위로
반짝이는 별 하나 내려와
세상을 따스하게 밝힙니다.
언론중재위원회도
별처럼 반짝이며
세상에 행복을 전하겠습니다.





어린이병원 마술봉사 서지에 양(21세 경인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마술로 아이들의 마음에 희망을 꽃 피워요

맑은 눈망울로 하루 종일 창밖을 바라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쁜 옷 대신 환자복을 입어야 하는 아픈 아이들.
병원 안에서 지루한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병원 아이들을 위해
마술봉사를 다니는 서지에 양은 마술을 통해 아이들 마음에 희망의 꽃씨를 심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피어나는 마법 꽃처럼 아이들 마음 속에도 예쁜 꽃이 필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언론중재위원회는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국민과 언론 간 분쟁을 조정과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곳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피해 구제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정·중재신청 절차와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론분쟁의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 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 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 내용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언론중재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언론피해 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 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재 스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pac.or.kr

언론중재Eye-Net people.pac.or.kr

블로그 pacblog.kr

페이스북 facebook.com/pacnews

Contents

2016 December Vol.198

04 인터뷰

영화 <귀향> 조정래 감독

06 미디어트렌드

인터랙티브 뉴스

07 문화토픽

푸치니 오페라 <라 보엠>

08 세상읽기

행복의 조건은

09 언중노트

부정적인 기사에 활짝 웃는 사진이러니

10 언론중재위원회 NOW

2016 언론중재위원회 7대 뉴스

12 여행수첩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여행

14 위원회 NEWS

15 조정중재 사례 / 책 리뷰

발행인 박용상

편집인 권우동

발행일 2016년 12월 1일

등록 2016년 9월 23일 서울중, 라00646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02-397-3114 FAX 02-397-3069

구독신청 홍보팀 TEL 02-397-3082~4

편집·디자인 더에이치 TEL 031-247-5141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14년의 기다림, 영원히 기억해야 할 이야기

조정래 감독

위안부 문제를 다룬 영화 <귀향>의 감독 조정래,
인터뷰를 위해 조 감독을 만난 날은 마침 그의 생일이기도 했다.
개봉관에서의 영화 상영은 이미 끝났지만 조 감독은 여전히 바쁘다.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15살 소녀들이 많다며,

- 2000년 단편영화 <종기> 연출
- 2011년 제13회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관객상
- 2011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기록영화 연출
- 2012년 영화 <두레소리> 제작/연출
- 2014년 다큐멘터리 영화 <파울볼> 연출
- 2016년 영화 <귀향> 각본/제작/연출



Q.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하셨습니다. 원래 영화감독이 꿈이었습니까?

A. 원래는 연극배우가 되고 싶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극단에 들어가 연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3 때 단장님께서 연극을 하면 너무 배고프니 영화 방면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많이 고민하다가 연극영화과에 들어갔는데, 원래부터 영화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서 많이 방황했죠. 그러다 1993년도에 영화 <서편제>를 보고 영화와 국악에 동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영화감독과 판소리 고수라는 두 개의 직업을 갖게 되었고요. 한 마디로, 영화 한 편에 제 인생이 바뀐 거죠.

Q. 감독으로서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으셨나요?

A. 여성과 노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두 대상을 합치면 '할머니'가 되죠. 저의 대학 졸업 작

품인 영화 <종기>도 '할머니'에 관한 영화였습니다. 이런 관심은 고향에서 닭백숙 식당을 하며 억척스럽게 집안을 꾸려온 저의 할머니, 그리고 며느리로서 대를 이어 식당을 운영한 제 어머니의 강인하고 넉넉한 모습을 보며 자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Q. 위안부 문제를 다룬 영화 <귀향>을 만드셨는데, 그 구체적인 동기나 경위가 궁금합니다.

A. 대학 졸업 후였던 2002년, 평소 활동하고 있던 판소리 극단 '바닥소리'에서 봉사활동 목적으로 '나눔의 집'을 찾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방문해서 국악공연을 한 것이죠.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방문 때 강인출 할머니가 미술 심리치료 과정에서 그린 <태워지는 소녀들>이라는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저는 위안부들이 어딘가에 살아계시거나 자연

사했을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림을 본 후, 꿈을 꿨는데 그림 속 불타는 소녀들이 나비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위안부들의 증언집을 읽으며 공부를 시작했고 이 사실을 어떻게든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전공이 영화니까 제일 먼저 떠올린 방법이 영화였던 것이구요.

Q. 영화 제작을 결심한 후 극장에 올리기까지 1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감독님으로 하여금 이 긴 세월을 견디게 한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A. 오랜 기간 영화 제작이 담보 상태에 있어 어떻게든 활로를 찾고자 연극 대본으로 바꾸기도 했고, 시나리오를 크게 바꾼 것만 해도 다섯 번은 넘는 것 같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알게 된 후부터는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안부로 끝

려갔던, 그 어린 10대 소녀들이 무려 20만 명이었으니까요. 먹고 살기 위해 다른 일도 하고 다른 영화도 만들었지만 저로서는 '기생전<귀향>일 수밖에 없었죠. 일종의 '숙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면 그걸 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네요.

Q. <귀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다룬 영화인데도, 당연한 말이지만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화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셨습니까?

A. 영화를 만든 이유를 분노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제게 이 영화는 14년 간의 성장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물론 저도 분노했죠. 동시에, 죄책감 또한 컸습니다. 그래서 제게 영화를 만드는 과정은 속죄하는 과정과도 같았습니다. 물론, 속죄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알리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화를 본 많은 분들이 분노를 넘어 그냥 아파하고 위안부의 아픔에 공감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물론, 일본이 저지른 만행이 워낙 뚜렷하기에 영화를 보면서 관객들이 느끼는 분노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Q. 영화는 현재를 살고 있는 '은경'이 과거의 위안부들을 불러오는 형식으로 전개됩니다. 여기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습니까?

A. 주인공 '은경'은 감독인 저를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죽은 위안부 소녀들을 위로하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여성의 몫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이 영화의 화자는 반드시 여성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타향에서 죽은 20만 명의 소녀들을 영화에서나마 고향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관객들이 영화를 보며 위안부 문제를 먼 옛날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현재 우리 시대의 문제로 느끼기를 원했습니다.

Q. 일본군이 위안부들을 불태우는 장면들에 대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장면과 관련해 감독으로서의 고민은 없었나요?

A. 그 장면을 보고 불편하다거나 끔찍하다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위안부들이 실제 겪은 일의 100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 제게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은유적인 방법으로 전달하고자 하면 애초에 소설이나 연극 등의 형태가 더 적절했을 겁니다. 저는 영화를 통해 위안부들이 겪은 참상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위안부들의 평균 나이가 16세 전후였던 점을 감안하여 그 나이의 관객들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5세 관람가'가 될 수 있도록 나름 수위 조절을 한 것이죠.

Q. 현재 준비 중인 영화 혹은 계획이 있으신지요?

A. 요즘 <귀향 - 14년의 기록>이라는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화 <귀향>이 다시 한 번 이슈가 되고 위안부 문제가 결코 끝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계속해서 알렸으면 합니다. 제 모든 사업의 목적은 단순하고 뚜렷합니다. 여전히 '기생전<귀향>'인거죠. 제게 영화 <귀향>은 자식과도 같은 존재라고나 할까요.

Q. 영화 <귀향>의 특별한 점 중 하나가 '뉴스펀딩'을 통한 제작비 모금방식입니다. 성공적인 뉴스펀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 아이디어였나요?

A. 제 영화 <두레소리> 때부터 알고 지낸 <한겨레21> 송호진 기자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뉴스펀딩 기사가 올라가던 날, 송호진 기자와 큰 기대는 하지 말자고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오픈한 지 세 시간 만에 천만 원을 돌파했고, 첫날에 삼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뉴스펀딩 사상 1억 원을 넘긴 최초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보고도 믿기지 않았죠. 어떤 자산가가 목돈을 낸 줄 알았는데, 기사 밑에 어마어마한 댓글이 달리면서 소액 기부

가 이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Q. 뉴스펀딩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A. 일반적인 후원의 경우, 수동적인 지원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웹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넘어오며 인터랙티브한 환경이 되었다고 봅니다.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는 내가 한 행동의 결과와 영화 제작 과정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한데요, 저는 이것을 가장 큰 성공요인이라고 봅니다.

Q. 끝으로, 아직도 영화 <귀향>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저 역시 이 영화를 보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잘 압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영화를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제 영화라서가 아닙니다. 꽃다운 10대에 위안부로 끌려간 소녀들의 70년 넘는 고통과 눈물의 역사가 담겨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봄으로써 우리 시대의 아픔에 동참한다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진행 양재규(홍보팀장)
정리 및 사진 최은진(홍보팀 차장보)



미디어트렌드

박기욱 CBS노컷뉴스 데이터·인터랙티브 뉴스 담당 기자



인터랙티브 뉴스 : 독자와 소통하는 디지털 뉴스 기법

INTERACTIVE NEWS

2012년 12월 세계를 강타한 뉴스 제작 방식이 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의 '스노폴(Snow Fall)'로 유명해진 인터랙티브 뉴스(Interactive News)가 그 주인공이다. 인터랙티브 뉴스 스노폴은 뉴욕타임스 신문지면이 아닌 인터넷 사이트에만 보도됐지만 폴리처상까지 수상했다. 한국 언론도 2013년 하반기부터 인터랙티브 기법을 사용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2014~2015년 사이 국내에서 인터랙티브 뉴스는 양적인 측면에서 정점을 찍었다.

인터랙티브 뉴스는 무엇일까? 인터랙티브 뉴스는 단어 뜻 그대로 독자와 상호작용하는 '반응형' 뉴스다. 비유하자면 뉴스를 글자만 가득한 프레젠테이션이 아닌 다양한 효과로 꾸며진 프레젠테이션으로 보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기자는 인터랙티브 뉴스로 독자에게 정보를 프레젠테이션하게 됐고, 독자는 뉴스에 제공된 정보와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접하는 카드뉴스는 이미지에 터치방식이 결합된 인터랙티브 뉴스의 기초라고 볼 수 있다.

인터랙티브 뉴스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일정한 시계열 순서로 정보를 보여주는 타임라인형에서부터 위치나 지리 정보를 이용한 지도형, 데이터 저널리즘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도표형, 영상·사진·음성·그래픽의 다양한 요소가 결합한 스토리텔링형 등이 있다. 뉴스 기획자는 다양한 기법 중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성격과 기획안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해 보도한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인터랙티브 뉴스의 취재와 보도는 기존 뉴스와 달리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 인터랙티브 뉴스는 기사를 취재하고 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기 좋게 디자인하고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언어로 전환해 웹에 게시하기 때문이다. 디자인, 코딩, 개발 부분은 전문 기술이 필요한 만큼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이 보편적이다. 최근에는 혼자서 인터랙티브 뉴스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도 개발되고 있다.

언론사는 왜 인터랙티브 뉴스를 주목했을까? 먼저 인터랙티브 뉴스는 기존의 뉴스로 보여줄 수 없는 시각적인 정보를 직관적으로 보도한다. 독자는 긴 뉴

스 글을 읽지 않고도 뉴스가 전달하려는 정보를 상호작용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반응형 뉴스인 만큼 독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다. 기존의 뉴스는 지면이나 설명의 한계로 방대한 정보를 모두 담을 수 없다. 인터랙티브 뉴스는 목록이나 옵션 등의 효과로 정보를 분류해 독자가 다양한 내용을 선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독자와 뉴스의 상호작용 과정은 인터랙티브 뉴스의 핵심이다. 예를 들어 전국 살인 발생률을 인터랙티브 뉴스로 표현하면 전국의 수치정보뿐만 아니라 서울 마포구에 사는 사람은 해당 구 정보를, 제주 서귀포시에 사는 사람은 해당 시 정보를 선택적으로 볼 수 있다.

단점도 있다. 먼저 인터랙티브 뉴스는 제작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표현하려는 내용이 많을수록, 전달하려는 내용이 복잡할수록 디자인, 코딩, 개발 부분에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기자 중심의 편집국, 보도국일 경우 디자이너, 퍼블리셔, 개발자가 함께 일하면서 협업의 시행착오도 겪는다. 무엇보다 화면이 작고 이동성이 강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는 최근 뉴스 소비 방식도 인터랙티브 뉴스의 단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모바일 OS 호환에서부터 다양한 화면 크기를 가진 스마트폰이 존재해 기준을 맞추기도 쉽지 않다. 이를 반영하듯 2016년 언론사의 인터랙티브 뉴스 보도 건수는 현저히 낮아졌다.

그렇다면 모바일 시대에 인터랙티브 뉴스를 포기하는 것이 맞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독자의 입장에서 모바일에 최적화된 인터랙티브 뉴스는 여전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인터랙티브 뉴스로 언론사에 화두를 던졌던 뉴욕타임스도 과거보다 더 간단하고 더 직관적인 인터랙티브 효과로 모바일 독자에게 다가가고 있다. 인터랙티브 뉴스는 무엇보다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코딩과 개발이라는 개념을 이해시키며 디지털 시대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형화된 취재기법으로 정적이던 언론사 보도 환경은 인터랙티브 뉴스로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는 뉴스 혁신을 배우고 있다. 따라서 모바일의 한계를 극복한 인터랙티브 뉴스가 최신 기술과 결합하는 미래의 뉴스 환경은 독자들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찾아온 사랑

푸치니 오페라 <라 보엠>

La Bohème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들뜬 풍경이야 세계 어디나 다르지 않을 듯하다. 첫눈에 사랑에 빠진 미미와 로돌포가 팔짱을 끼고 함께 나선 크리스마스 이브의 파리 거리도 마찬가지다. 추운 날씨지만 거리는 그야말로 유쾌하고 즐거운 기운이 넘친다. 오페라 <라 보엠>의 2막에서는 이런 거리 풍경이 펼쳐진다. 흥겨움에 취한 미미는 이 물건, 저 물건을 집어들지만 가난한 로돌포가 사줄 수 있는 것은 분홍빛깔의 단출한 모자뿐. 그래도 미미는 행복을 느끼며 연인의 친구들이 기다리는 카페 모뎬으로 향한다. 오페라에서 사랑을 막 시작한 연인들의 심리를 이토록 섬세하게 묘사한 작곡가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푸치니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랑에 빠진 연인의 모습을 낭만적인 동시에 현실적으로 그려낸다.

푸치니(G. Puccini)가 작곡해 1896년 초연된 <라 보엠, La Bohème>은 1830년대 파리의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시작되는 4막의 오페라다. <라 보엠>이라는 제목은 보헤미안을 의미한다. 원래 보헤미안은 프랑스인들이 집시를 부르던 말에서 나왔는데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세상의 관습 따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시인이자 화가 같은 예술가들을 일컫게 되었다. 파리의 보헤미안으로 불리는 이들은 화가나 시인, 음악가, 철학자 등 재능을 밀천으로 살아가는 젊은 무리였다. 혁명으로 인해 신분계급이 무너진 큰 도시에서 자신의 꿈과 이상을 꽃피워보려는 이 젊은이들의 패기와 열정 앞

에 가난과 배고픔 같은 것은 어쩌면 재미있는 유희처럼 여겨졌는지도 모른다.

이 작품 역시 남자 주인공 로돌포의 춤고 남루한 다락방에서 시작되어 다시 그 다락방에서 끝을 맺는다. 추운 겨울날 떨감을 마련하지 못해 자신들의 작품을 불쏘시개로 사용하고, 심하게 밀린 집세를



독촉하는 집주인을 따돌리기에 바쁘지만 로돌포와 친구들은 유쾌하기만 하다. 그건 아마도 그들의 젊음에서 오는 자신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가난하지만 아름다운 청춘 남녀의 만남과 헤어짐, 재회, 다시 영원한 이별이라는 전형적인 이별 공식을 완벽히 따르고 있는데다 두 사람이 사랑을

시작하고 이별하기까지의 과정을 어쩌나 절절하고 섬세하게 보여주는지 푸치니가 근대 사실주의 오페라의 거장이자 영화같은 오페라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한다.

프랑스 작가 뒤르제의 <보헤미안의 생활정경>을 원작으로 한 대본도 참신하고 흥미롭지만 무엇보다 작품을 성공으로 이끈 것은 푸치니의 음악이었다. 오페라 작곡가로서 성공하기 전 <라 보엠>의 주인공들과 다름없는 생활을 했던 푸치니는 그 경험을 살려 로맨틱하지 그지없는 오페라를 작곡했다. 듣는 이의 가슴을 젖게 하는 서정적인 선율은 자칫 통속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작품을 사랑스러우면서도 가슴 먹먹한 러브스토리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 1막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만나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을 감싸던 달콤한 멜로디가 4막에 이르러 죽음을 앞두고 다시 재회한 두 사람 사이를 흐른다. 죽어가는 미미가 힘겹게 회상하는 두 연인의 아름답던 순간이 음악으로 재현되는 것이다. 관객들은 사랑의 기쁨으로 빛나던 두 사람을 함께 회상하며 이어질 비극에 더욱 아픔을 느낀다.

현실주의 오페라를 구현하던 푸치니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로 관객을 감동시켰다. 연인과 헤어지면 세상 모든 유행가가 내 주제처럼, 사랑과 이별을 경험해 본 모든 이들에게 오페라 <라 보엠>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행복의 조건은

독일인 마이케 반 덴 뷔에게 아이슬란드 은행원 오타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네 독일 사람들은 정말 철저해요. 그래서 잘 살고 성공했겠지요. 하지만 30년간 뼈 빠지게 일하고 나서 행복해지는 건 내 방식이 아니에요.” 그는 대학에서 미술치료를 전공하고 마케팅 분야에서 일했던 평범한 독일인입니다. 네덜란드와 멕시코에서 13년간 살면서 ‘행복’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됐고, 독일로 다시 돌아온 뒤 왜 독일 사람들은 남들보다 잘 살고 환경도 좋은데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 에라스무스 대학에는 지난 100년간 세계 행복 연구를 모아 정리한 데이터뱅크인 ‘세계 행복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는 평가를 마친 행복 관련 학술간행물이 9,000건, 연구는 2만 4,000건이나 된다고 하니 행복 연구물의 총집합이라 할 수 있겠죠. 그는 이 연구물을 바탕으로 ‘가장 행복한 13개국’을 방문, 행복하다고 느끼는 300여 명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나라의 조건>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13개국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코스타리카,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파나마, 룩셈부르크, 멕시코, 콜롬비아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선정한 ‘가장 행복한 13개국’입니다. 조사 기관이나 방법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 나라들은 늘 행복지수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바꿔 말하면 이보다 덜 행복한 나라들은 늘 그 자리에서 더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13개국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인생의 소박한 것을 아끼는 겁



니다(콜롬비아, 대학교수). “타인을 믿고 타인에 대해 좋은 것만을 생각합니다(노르웨이, 외교부 직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 강한 결속감이 행복을 줍니다(룩셈부르크, 은퇴 노인).” “병원에 가면 우리나 수상이나 똑같은 대접을 받아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예요(캐나다, 레스토랑 사장).”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사람들을 대하면 돼요(아이슬란드, 언론사 직원).” 행복을 느끼는 이들이 대답한 내용은 참 소박하고 단순합니다. 대강의 공통점은 타인에 대한 배려, 여유, 사랑, 가족, 평등, 자유, 차별 없음 같은 것들을 느끼고 있거나, 그들의 삶 속에 배어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콜린스 사전이 올해의 단어를 선정했는데, 브렉시트와 트럼프즘에 이어 3위가 ‘휘게(hygge)’라는 덴마크 말입니다. 덴마크는 늘 행복지수 1등으로 꼽히는 나라입니다. 휘게는 특정 사물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라 편안하고 행복한 분위기와

감정을 느낄 때 쓴다고 합니다. 집 안에서 편안하게 있을 때의 느낌, 가족·친지들과 함께할 때의 행복감 등을 표현할 때 씁니다. 스웨덴에는 ‘라곰(lagom)’이란 말이 있습니다.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당한 상태를 말하는데, 스웨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자 행복감을 느끼는 원천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를 한마디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최소한 자신의 언동과 생각이 자신은 물론 타인의 행복에도 영향을 미칠 요소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세상을 통제하기 힘들면 우리 자신을 통제하면 돼요.” 오스트레일리아의 행복학자의 말입니다. 그는 나쁜 일이 일어났을 경우 적극 대처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이만한 게 어디야. 더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살아있으니 됐지.” 언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지 구분할 줄 아는 것, 그게 행복의 조건 아닌가 싶습니다.

부정적인 기사에 활짝 웃는 사진이라니



“저에 관한 나쁜 기사에 아이러니하게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게재해 저를 욕보였습니다.” 공무원 A 씨는 소속 기관에서 제명을 당한 뒤 제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법원은 A 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이후 항소심에서는 인용되었다). 한 신문사에서 이 재판 결과를 보도하며 A 씨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A 씨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에 아이러니하게도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실었다며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명예훼손에 해당되는가? 초상권 침해는 성립하는가?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고 해서 다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언론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어야 한다. 이에 대해 언론사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명예훼손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다.

형법 제310조에서는 공연한 사실의 적시로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도 그 보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보도의 공익성)이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다(보도의 진실성)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조항을 민사사안에도 적용하여 개인의 명예와 표현의 자유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을 조화롭게 보호하는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안으로 다시 돌아와, 신문 기사로 인해 A 씨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보도의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이 기사의 위법성은 조각될 것이다.

“제가 무슨 공인입니까? 이미 제명됐는데요.”

조정심리과정에서 언론사는 A 씨가 흔히 말하는 ‘공인’에 해당하므로 보도의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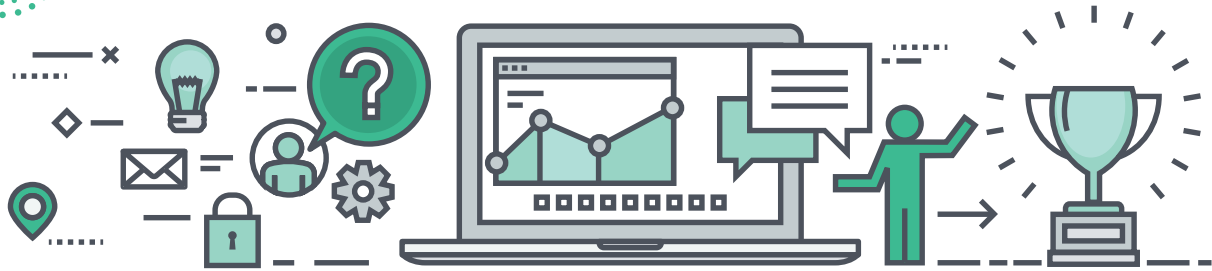
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 유명 연예인·운동선수·방송인 등은 공인으로 인정되고 있는 추세다. 그렇다면 나름 지역에서 고위 공무원에 속했던 A 씨 역시 공인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공인에 관한 공적 사안에 대한 보도는 개인의 명예보다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공직자의 업무 관련 사안은 항상 언론의 감시·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¹⁾ 이러한 법리는 초상권이나 성명권 등과 같은 기타 인격권 침해 관련 사안에서도 마찬가지로여서 공인은 일반인에 비해 인격권 침해로 인한 수인의 한도가 넓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언론사의 항변에 대한 A 씨의 반응은 어땠을까? “제가 무슨 공인입니까? 이미 제명됐는데요.” A 씨는 자신의 공인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A 씨는 제명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등 공직자로서 계속 활동할 의사를 지니고 있었다. 그의 제명 또는 복귀는 전국적으로는 아닐지라도 해당 지역에서는 중요한 공적 관심사이므로 결과적으로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라는 A 씨의 주장은 기각될 수밖에 없었다.

담당 조사관으로서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공인에 대한 보도의 허용범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아무리 그 대상이 공인이라 하더라도 부정적 기사에서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게재해 당사자로 하여금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한 언론보도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생각해보았다. 법적인 책임 여부와는 별도로 언론윤리라는 측면에서 또 불필요한 분쟁 방지를 위해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사진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있었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1) 이를 가장 잘 반영한 것이 미국의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의 법리’이나, 서울중앙지법 2000. 12. 27. 선고 2000가합16898 판결에서 보듯 우리 법원은 언론사의 현실적 악의까지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2016 언론중재위원회 7대 뉴스



2016년 <언론사람> 마지막 호를 발간합니다. 어느덧 한 해가 지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무렵이면 항상 하는 일, 지난 1년간의 열정과 성과를 되돌아보며 미처 풀지 못한 숙제는 없었는지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올해로 창립 35주년을 맞이한 언론중재위원회 역시 크고 작은 이슈 속에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언론사람>이 위원회 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2016 언론중재위원회 7대 이슈'를 선정해보았습니다.

남은 시간, 독자 여러분께서도 2016년을 마무리하며 다가올 2017년을 의미 있게 계획해보기를 기원합니다.



2위

득표율 54%

'2016 대한민국 SNS 대상' 공공부문 페이스북 최우수상 수상

위원회는 <제6회 대한민국 SNS 대상> '올해의 페이스북'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위원회 페이스북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위원회의 정책과 각종 정보를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등의 형식으로 전달해 국민의 이해 증진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현재 위원회 페이스북은 약 6,500여명의 팔로워들과 언론법제 및 미디어 이슈 등의 깊이 있는 콘텐츠로써 소통하고 있습니다.



3위

득표율 38%

최초로 '팟캐스트'를 조정대상으로 인정하여 심리 진행

한 신청인이 지면보도와 해당 보도 관련 취재 뒷 이야기를 전한 팟캐스트를 대상으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해당 팟캐스트의 경우 언론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중재의 대상이 되며, 지면보도와 함께 일괄적인 피해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사례는 팟캐스트를 조정·중재 대상 매체로 인정하여 심리를 진행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4위

득표율 36%

성별·인종·종교·질병·장애에 따른 차별 금지에 대한 심의기준 신설

'전남 한 섬에서 있었던 학부형의 교사 성폭행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신원 노출이나 자극적인 보도내용으로 말미암아 성차별 이슈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수용하여 1)성별·인종·종교·질병·장애에 대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고, 2)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한, 성별·인종·종교·질병·장애 관련 세부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해서는 안된다는 심의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1위

득표율 70%



언론중재법 개정안 발의

10월 28일 인격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줄여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모바일 퍼스트' 등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언론 환경에 걸맞은 언론피해구제제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해왔습니다. 그 결과, 위원회 주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습니다.



5위

득표율 34%

위원회 야구동호회 「PACERS」 2016년도 중구하티리그 통합 우승

직원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꾸려진 위원회 야구동호회 'PACERS'가 중구하티리그에서 통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위원회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PACERS'는 한 해 동안 13경기를 치른 결과, 9승3패1무를 기록해 창단 1년 만에 리그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6위

득표율 23%

최초 여성노조위원장 오윤미 위원장 선출

1997년 위원회 노동조합 설립 이후 최초의 여성 노조위원장이 선출되었습니다. 2017년 7월 초까지 제18대 노조를 이끌게 된 오윤미 위원장은 노조원 복지 향상을 위해 양성평등·소통부를 신설하였으며, 프레스센터 내 노동조합 협의회를 발족하여 유관기관 노동조합과의 유대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오 위원장은 올바른 노사관계 설정을 위해 제도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6위

득표율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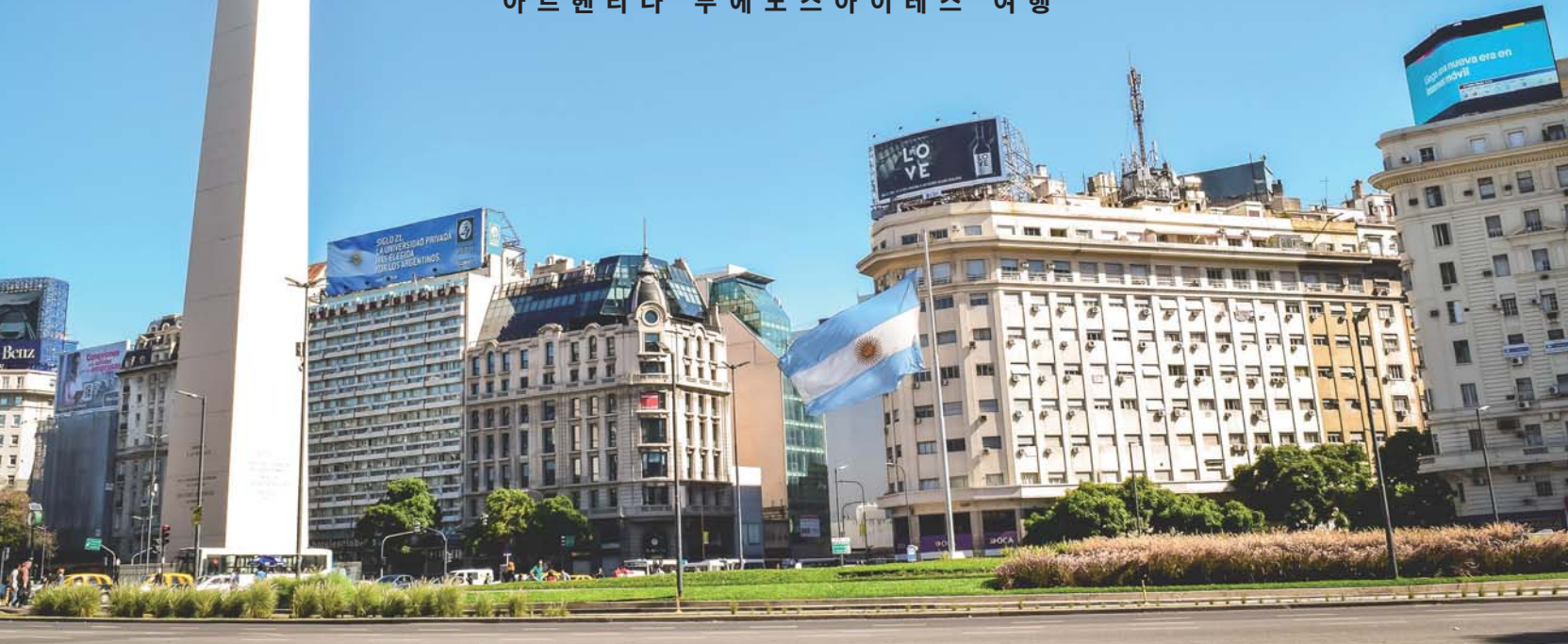
위원회,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논란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위원회가 법 적용 대상 기관인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회는 법률이 지정한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중재위원은 재판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중재결정을 내리는 등 수행 업무 성격이 공무로 판단되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7대 뉴스는 홍보팀에서 1차로 17건의 뉴스를 추진 후 위원회 사무처 직원들의 투표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투표는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지면과 모바일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총 55명의 사무처 직원들이 참여했습니다.

국가의 의미를 되새기는 여정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여행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상징인 콩그레스 광장의 오벨리스크

이해준 선임기자는 <헤럴드경제> 경제부장과 정치부장을 역임하고 2011년 10월부터 9개월 동안 가족과 함께 아시아에서 유럽~남미~북미로 '희망찾기 세계일주'를 펼쳤다. 여행 이야기는 <길을 찾아나선 가족(전 4권, 배안)>으로 출판되었다.

유럽을 연상시키는 애수의 도시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는 한국과 대척점에 있는 도시다. 비행기를 타는 시간만 24시간 이상 걸린다. 하지만 남미 대국의 수도다운 풍모와 위엄을 지니고 있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여행해도 아깝지 않다. 영욕의 역사까지 살펴본다면 여행의 낭만과 지적 만족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남미가 아니라 유럽에 온 듯한 착각이 들게 하는 도시다. 18~19세기 신고전주의 양식의 웅장하고 고풍스런 건물들이 즐비해 스페인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프랑스 파리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백인 비중이 90%를 넘고, 카페와 레스토랑, 거리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흥겨운 탱고 음악도 이런 느낌을 배가시킨다. 약간 색이 바랜 것이 과거의 화려했던 영화를 보여주는 것 같다. 때문에 '남미의 파리'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돌아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흡은앤흡오프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5월 광장에서 출발해 25개 관광 명

소를 거치며, 중간에 내리고 싶은 곳에 내렸다가 다음 버스를 탈 수 있다. 버스는 5월 광장에서 '장미의 집'으로 불리는 대통령궁과 시의 상징인 레프블리카 광장, 콩그레스 광장과 의사당을 거쳐 탱고로 유명한 산텔모 지역, 최고의 명문 축구클럽 보카 주니어스 홈구장이 있는 라 보카, 에바 페론의 묘지가 있는 레콜레타까지 이어진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필수 관광코스를 모두 들르는 셈이다.

5월 광장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중심이면서, 국가적 행사는 물론 과거 민주화 시위가 펼쳐졌던 유서 깊은 곳이다. 생각보다는 넓지 않은데, 관광객들로 항상 붐빈다. 5월 광장 주변에는 핑크빛으로 채색된 대통령궁과 재무부, 중앙은행, 시청사 등 행정기관은 물론 카테드랄과 같은 멋진 건축물들이 밀집해 있다. 5월 광장과 시내를 연결하는 중심도로가 5월 대로이며, 이 대로를 따라가면 레프블리카 광장의 오벨리스크와 콩그레스 광장의 의회 건물이 나온다. 레콜레타의 에바 페론 무덤도 인기가 많다. 에비타라고 불리는 에바 페론은 삼류 극단 배우 출신의 퍼스트레이디로, 남편인 페론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노동자와 빈민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활동을 활발히 펼쳐 대중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다. 하지만 페론의 정책은 포퓰리즘으로 재정적자 등 엄청난 후유증을 몰고 와 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카빌도스에서 발견한 아르헨티나의 비밀

필자는 브라질~아르헨티나 경계에 있는 이과수 폭포를 둘러본 다음 아르헨티나 3대 도시인 로사리오를 거쳐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여행했다. 이어 버스로 2시간 동안 대평원을 횡단해 '남미의 스위스'라는 서남부의 휴양도시 바릴로체를 여행하고, 다시 안데스 산맥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며 멘도사, 살타 등 주요 도시들을 돌아보았다.

그렇게 둘러본 아르헨티나는 수수께끼 같은 나라였다. 1800년대 말~1900년대 초엔 세계 5대 부자나라였다. 국토는 인도에 버금갈 정도로 넓지만, 인구는 4,200만 명으로 한국보다도 적고,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농업이나 목축 여건도 좋아 먹고 사는 데 걱정이 없었다. 환율이 조금만 올라도 수출이 활기를 띠며 호황을 맞아 20세기 초엔 최고의 황금기를 누렸다. 하지만 지금은 실패한 국가의 전형이 되었다. 부정부패와 정치 불안, 경제정책의 실패로 엄청난 잠재력이 사회발전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20세기 대부분을 경제위기로 지새면서 지금은 제3세계의 변방 국가로 전락했다. 아르헨티나를 여행하면서 그 이유에 대한 의문이 가지지 않았다. 그 실마리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카빌도스(Cabildos)에서 찾을 수 있었다. 카빌도스는 구 시청사(타운홀)로, 지금은 5월혁명박물관으로 개조되어 있다. 건물도 작고, 눈에 띄는 전시물이 별로 없어 찾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인상적인 곳이었다.

카빌도스는 스페인 식민지 시기인 1580년 타운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처음 지어졌다.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인근의 이민자 집단, 즉 콜로니(colony) 대표들이 이곳에서 회의를 열고, 입법과 사법, 행정 기능을 수행했다. 아르헨티나에서 콜로니라는 말은 네이버후드(neighbourhood)라는 말과 함께 지금도 많이 사용된다. 유럽 등의 이주민들이 각자 독특한 문화를 유지하면서 거주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네이버후드라는 말은 '이웃'을 의미하니 그런대로 이해가 되지만, 식민지라는 의미의 '콜로니'라는 말을 지금도 사용하는 것은 언뜻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런데 카빌도스에서 보니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바로 이 네이버후드와 콜로니스트들이

과거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청사로 쓰였던 카빌도스



모여서 만든 도시였고, 넓게 보면 아르헨티나가 다양한 이민자 집단으로 구성된 국가였던 것이다.

이들 콜로니 대표들은 1810년 5월 25일 카빌도스에 모여 스페인으로 부터의 독립을 선언했다. 당시 스페인이 프랑스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권력의 진공상태가 생기자 남미 각국에서 독립의 기운이 확산됐고, 아르헨티나의 콜로니 대표들도 자신의 재산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 독립을 선언한 것이다. 그렇다 보니 사회구조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았다. 엄밀히 말해 아르헨티나 독립으로 지배층이 스페인 왕국에서 토착 콜로니스트들로 대체된 것이었다.

국가 정체성 상실의 대가와 그 교훈

아르헨티나를 여행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을 소개할 때 부모의 출신지를 먼저 얘기한다. 아르헨티나 국민이기에 앞서 유럽 이민자의 후예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바릴로체가 '남미의 스위스'가 된 것도 독립과 스위스 이민자들이 독특한 문화와 건축 양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의 길이나 공원에 다른 나라 이름을 붙여놓은 곳이 많고, 각 콜로니가 기증한 조형물들도 많다. '이탈리아 공원', '독일 정원', '칠레 대로' 같은 식이다. 아르헨티나는 아직도 과거의 콜로니적 인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듯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고 국민이 공유할 가치를 상실하면, 국민은 각자 자신의 능력대로 이익을 챙기는 데 몰두하게 된다. 과거 식민지 시기와 같은 약탈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아무리 영토가 넓고 잠재력이 풍부해도 국민적 에너지를 사회개발로 결집하기 어려워진다. 국가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국가는 실패하는 것이다. 아르헨티나가 보여준 영욕의 역사와 오늘날의 모습은 '최순실 게이트'로 국가 시스템이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에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아르헨티나 여행은 유럽을 연상시키는 건축물과 도시, 광활한 자연, 독특한 탱고 문화로 매력적이었지만, 역사와 국가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여정이기도 했다.

이해준 선임기자의 <길을 찾아나선 가족(전 4권, 혜안)>



COMMISSIONERS 위원동정

·김동국 중재부장, <전국 행정법관 포럼> 참석

김동국 중재부장(강원중재부,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은 11월 3~4일 양일간 경기 양평 볼룸비스타에서 열린 <행정법관 포럼>에 참석했다. 사법 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포럼에 전국 각지에서 행정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동국 중재부장은 '판례의 처분성 확대 경향과 행정소송실무의 지향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홍은희 중재위원, <재난보도-언론의 역할과 책임> 세미나 토론

홍은희 중재위원(서울제1중재부,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은 11월 4일 서울 중구 배재학당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된 <재난보도-언론의 역할과 책임> 세미나에 참석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홍은희 중재위원을 비롯해 언론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세월호 참사나 경주지진 등을 통해 드러난 재난 보도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논했다.

·송중현 중재위원,

<방발기금 운용의 합리적 정책 방안 제언> 토론회 토론

송중현 중재위원(대전중재부,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은 11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발기금 운용의 합리적 정책 방안 제언> 토론회에 참석했다. 한국언론학회가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 송중현 중재위원은 토론자로 참석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목적, 활용 현황 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유세경 중재위원, <미디어 사회 20년, 평가와 전망> 세미나 토론

유세경 중재위원(서울제3중재부,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은 11월 23일 서울 퍼시픽타워에서 열린 <미디어 사회 20년, 평가와 전망>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유세경 중재위원은 이병훈 PD의 「대장금에서 옥중화까지, 한류의 출발과 진화」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한류의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제1회 언론중재위원회 웹툰 공모전>

개최

홍보팀은 국민 참여를 통한 홍보강화와 다양한 홍보 콘텐츠 개발을 위해 웹툰 공모전을 개최했다. 11월 1일부터 3주간 응모작을 접수받았으며, 심사회의를 거쳐 총 8편(금상 1, 은상 2, 동상 5)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당선작은 위원회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 SNS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다.



위원회,

지역언론인 간담회 마무리

위원회는 10차례에 걸친 지역언론인 간담회를 마무리 지었다. 5월과 7월 각각 지역언론사 대표와 간담회를 실시한 제주와 충북 사무소를 제외하고, 11월 10일 경기를 시작으로 경남, 대구, 강원, 부산, 광주, 대전, 전북 지역 등 8개 지역사무소는 언론사 편집인 또는 지자체 공무원들과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언론환경에서 효율적인 피해구제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알면 유용한 언론분쟁 Q&A>

핸드북 발간

교육콘텐츠팀은 11월 30일 <알면 유용한 언론분쟁 Q&A> 핸드북 증보판을 발간했다. 지난 2015년 처음으로 발간해 큰 호응을 받았던 핸드북에는 위원회가 2016년 한 해 동안 실시한 언론인 대상 교육에서 나온 질의 중 주요한 내용을 추가해 제작했다.



<미디어와 인격권>

제2권 발간

위원회는 11월 30일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2권을 발간하였다. 다수의 논문이 투고된 가운데 엄정한 심사를 통해 '초연결사회와 인격권'을 주제로 한 기획논문 3편과 연구논문 3편이 게재되었다.



왜곡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및 영업상 손해, 기사삭제로 조정성립

A 방송사는 특정 의약품이 종양 유발 위험이 있어 식약처에 의해 사용중지 권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널리 쓰이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는 **신청인**은 해당 제품은 종양 유발 위험이 아닌 제조공정상의 문제로 사용중지 권고를 받은 것이며, 후속 조사를 통해 안전

성이 입증되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중재부는 해당 보도로 인해 신청인의 명예훼손 및 영업상 손해가 예상되고 인터넷을 통해 보도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였고 A 방송사도 이에 공감하여 기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업체와의 뒷거래로 회사가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 보도, 정정보도로 조정성립

B 신문사는 신청인 회사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지 프로그램이 시중가보다 비싸게 책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 회사와 해당 업체 간 뒷거래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신청인 회사는 해당 복지 프로그램이 고급을 지향하는 제품이어서 시중의 다른 프로그램과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고 신청인 회사와 업체 간 뒷거래 등이 전혀 없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B 신문사는 제보를 받고 시중의 프로그램 가격

을 비교하는 등 취재과정을 거쳤으며 뒷거래 의혹을 제기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중재부는 B 신문사가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에서 뒷거래 의혹을 제기할 만한 근거로 해당 복지 프로그램이 비싸다는 것 이외에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정보도 게재로 합의할 것을 양 당사자들에게 권유하였다. 이에 양 당사자들은 중재부의 권유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BOOK

책 리뷰



아이큐 50 내 동생, 조반니

자코모 마차리올 저, 임희연 역
걷는나무, 2016

슈퍼히어로 조반니와 함께 하는 특별한 여행

간절히 기다리던 동생 조반니가 태어났다. 부모님이 '특별한' 아이라고 하기에 초능력을 가진 슈퍼히어로인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조반니는 함께 자전거를 탈 수도, 나무에 오를 수도 없는 다운증후군 환자였다.

이 책의 저자, 조반니의 형 자코모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동생이 창피하게 느껴졌고 친구들에게 동생의 존재조차 알리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놀러왔던 친구들이 우연히 조반니와 마주치게 되었는데, 당황스러워 움푹달싹할 수 없었던 자신과는 달리 너무나 자연스럽게 조반니를 대하는 친구들을 보고 자코모는 죄책감을 느낀다. 이후 여러 경험을 통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조반니만의 특별한 재능을 목격하게 되면서, 자코모는 비로소 조반니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 책은 지난 해 3월 '더 심플 인터뷰(The Simpel Interview)'라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차별 없고 진실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을 권하는 영상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 20만 뷰를 기록했고, 2017년에 영화로도 제작될 예정이다. 조반니와 자코모가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제1회 언론중재위원회 웹툰 공모전

수상작 발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주최한 제1회 언론중재위원회 웹툰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합니다. 수상하신 분들께 축하드리며,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뽕뽕뽕



온달장군의 언론피해

-언론중재위원회 웹툰 공모전-



온달장군의 언론피해

글/그림 이현주



도그맨 비긴즈

글/그림 장동혁



오해와 손

글/그림 안영진



지혜의 힘

글/그림 오진경



신별주부전

글/그림 이려은



루머에 대처하는...

글/그림 이려은



그것이 알고싶어

글/그림 김영한



언론의 무게

글/그림 최현정

